



군민과의 소통 군정의 최우선



고 창군(군수 박우정)이 적극적인 현장소통으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군정추진에 힘쓰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3일까지 14개 읍·면에서 진행된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각 읍·면을 순회하며 3000여명의 군민들을 만나 현안사업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읍·면 14곳 순회 의견 수렴
생활도로·농로 확·포장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논의

박 군수는 열린 대화 현장에서 수렴된 건의사항 158건, 경로당 방문 시 접수된 건의사항 30건, 기업체·귀농·다문화세대 방문에서 5건, 서면건의의 145건 등 모두 338건의 건의 사항에 대해 각 담당부서의 신속한 현장방문과 해결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읍·면별로는 아산면 32건, 고창읍 31건, 상하·성내면 각 26건, 고수·공음·신림면 각 25건, 대산면 24건, 무장·심원·부안면 각 23건, 흥덕면 19건, 해리·성송면이 각 18건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분야별로는 현안건의 26건, 정책 1건, 시책 1건, 일반건의 130건, 서면건의의 145건, 경로당 건의 30건, 기타 5건 등이 제시됐다.

주요 건의사항은 생활도로, 농로 확·포장부터 상·하수도 시설 확장·개선, 배수로·소하천정비, 경로당개보수 및 체육시설 확충, 마을진입로 및 안길 개선,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군은 건의 내용 중 긴급한 현안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해당 실과 소별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으며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상황을 건의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처리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히 안내하기로 했다.

박우정 군수는 "군정의 최우선은 군민이며,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최고의 방법은 현장이다"라며 "올해도 군민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생생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군민 체감도가 높은 군정, 군민 행복도가 높은 고창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생활권 동행 아름다운동행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경이로움, 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는 여기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